

이대통령 “中, 공정·책임있는 자세 가져야”

후진타오 특사 다이빙귀 외교담당 면담 “인내 한계” 2시간 넘게 中에 할말 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시간여 동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 변화”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는 6·25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 왔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이 국무위원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국측의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남북한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다이 국무위원은 이날 후 주석의 구두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할 이야기는 다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번 면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 시는 인내하지 않고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반해 다이 국무위원 측은 ‘한반도 상황 악화 방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라는 모호한 내용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월맹’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6자 회담 재개를 통해 이번 연평도 사태를 풀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 대통령은 6자 회담 이전에 남북 간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와 비교하면 중국의 태도에 진전이 이뤄졌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날 방한한 다이빙귀(戴炳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에 따른 대책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연기한 대신, 한 단계 격을 높여 부총리급 거물을 특사를 급파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 것은 다소 진일보한 태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오전 10시 시작한 이날 면담은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다이 국무위원이 회담 말미에 배석자 없이 독대해 잠시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

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다이 국무위원이 서해상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의 우려와 자제의 뜻을 전달하고 이 대통령에게 이날 중국측이 제의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한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이 국무위원은 후 주석의 ‘친서’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후 주석과 원 총리의 메시지를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연평도 민간인 사상 유감 표명

“군시설물만 ‘인간방패’ 형성” 주장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27일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사는 ‘군사적 충돌을 초래한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처럼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그 책임은 이번 도발을 준비하면서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하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민간인 사망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논평은 또 “사건 당시 적측의 포탄들은 우리의 포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민가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날아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측의 피해를 구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논평은 이어 28일부터 서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미

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 7천t급)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남조선 괴뢰들을 사족하여 연평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기회로 지금까지 세번씩이나 발포했다가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핵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기어코 성사시켜 보려고 미리부터 획책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이 끝없는 항공모함을 조선 서해에 진입시키는 경우 그 후과(나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에서 60년이 되어 오도록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주기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지배전략에 따른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기인된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방부 “북 위력 강화 고폭탄 추정”

열압력탄 사용 흔적 발견 못해

지난 23일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의 포탄은 위력을 강화한 고폭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사용한 포탄과 관련 “현재 고폭탄을 더 강화시키는 어떤 재질을 넣어서 화염이나 위력을 더 키운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좀 더 기술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TNT와 RDX가 들어간 고성능 화약에 알루미늄 분말 같은 것을 섞으면 화염이 커지고 폭발력이 늘어난다”며 “아마 그런 현상의 탄약이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술조사팀에서 들어가서 폭발현상의 특성 등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는 열압력탄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며 “추가로 수거한 재질들을 통해 지속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연평도를 포격한 122mm 방사포탄 노출 부분에서 ‘1’이라는 숫자가 발견됐고 천안함 폭침 시 사용된 북한 어뢰추진체에 표기된 1번과 표기 방법이 유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무기에 손으로 글자나 숫자를 쓰고 있으며 글자는 유성매직 등을 이용해 표기하고 쓰인 글씨는 고열에도 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그동안 무기에 기계로만 글씨를 새긴다든지, 글씨가 고열에 녹아서 없어져야 한다든지 하는 어뢰조사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수거한 포탄이 30여종인데 대부분 원형상태로 수거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현재 1번이라는 글씨체가 식별된 다른 추진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서해 한·미연합훈련 투입 고성능 무기들

하늘엔 지상최첨단정찰기 ‘조인트스타즈’ 해상엔 떠다니는 군사기지 ‘조지워싱턴호’



미국 고성능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한미 양국이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서는 공중과 해상에 고성능 무기체계가 대거 투입, 물밑 틀 없는 입체작전이 펼쳐진다.

공중에는 미국의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해상에는 ‘떠다

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각각 모습을 드러내는 것.

‘조인트 스타즈’는 고도 9~12km 상공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전자부대 상황 등 지상 병력·장비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로, 이번 훈련 기간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전격 투입됐다. 폭 44.2m, 길이 46.6m, 높이 12.9m, 순항속도 마하 0.8의 성능을 보유한 ‘조인트 스타즈’는 1991년 1월 걸프전에 참가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잡아내는 등 그 능력이 입증됐다.

하늘에서 ‘조인트 스타즈’의 눈이 날카롭다면 해상에서는 9만7000t급의 함모 조지워싱턴호가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1992년 취역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조지워싱턴호의 길이는 360m, 너비는 92m에 이르며 돛대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1m에 달한다. 원자로 2기를 갖춰 외부의 연료공급 없이도 20년간 자체 운항이 가능한 조지워싱턴호는 구축함, 순양함 등과 함께 항모전단을 구성, 반경 1000km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특히 구축장 3배 크기(1만8천211㎡)인 비행갑판에 위치한 전폭기 수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조기경보기 E-2C(코크아이 2000), 전자전

투기 EA-6B 등 80여대의 항공기는 조지워싱턴호의 위력을 더한다. 슈퍼호넷 등 최신에 전폭기는 단 2.5초만에 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해군 최초의 7600t급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활약도 주목된다.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SPY-1D(V)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Aegis) 전투체계를 탑재해 동시에 1천여개의 표적 탐지·추적이 가능하고 그 중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하나투어

예약문의
062-224-0022

광주 무안직항기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전일빌딩 1층 투어뱅크

구. 도청

금남로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1 한국능률협회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퍼워 1위

BRAND STAR

브랜드스타 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KS-SQI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광주/순천 출발

일본 부관훼리 | 3박 4일

아소팜 특급호텔 숙박 **요금 439,000원~**

- 출발날짜: 매일출발
- 특전
 - 특급 아소팜 빌리지 온천 호텔 숙박
 - 아소팜 빌리지에서 70가지 메뉴의 웰드뷔페 레스토랑 석식 제공
 - 벚부 가마도 지옥온천 순례 및 유노하나 관광
 - 일본의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 있는 유후인 긴린코 호수관광
 - 세계 최대급 칼데라산 아소산 관광

무안공항 마카오 전세기

홍콩 | 마카오 | 4일 | 5일

요금 899,000원~

- 출발요일: 목(4일), 일(5) 주 2회 운항
- 상품특전
 - 무안공항출발
 - 스탠리마켓, 리펄스베이, 빅토리아피크 홍콩대표 관광지
 - 마카오 시내관광, 성바울 성당 등 주요 관광지 관광
 - 왕차석, 광동식 등 현지식 제공

무안출발 동방항공

상해 | 주4회 증편 | 매주 월·수·목·토

증편특가 단회 - 상해 | 무석 | 항주 | 소주 4일

출발날짜: 12월 27일 단 1회 **요금 369,000원~**

- 특전
 - 5성호텔 무석마라도호텔 샤르카론전용 체험
 -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마사지 체험
 - 소주 유원, 한산사, 호구탑 관광
 - 항주 서호유람선 탑승, 성황각, 성황묘, 육회탑 차창 관광
 - 상해의 핵심 타이강루, 남경루, 신천리 관광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필수경비 포함: 여행자보험(해외1억원/국내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선택경비: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일정표에 명시), 개별적인 팀 및 비자비용 별도. ■ 서울시 중로구 공평동 1번지(주) 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37호(서울) ■ 관광품질신고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5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 최소 출발인원: 10명 ■ 승차: 2급 호텔 이상 ■ 교통편: 항공/버스 ■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02)는 오동변동임)